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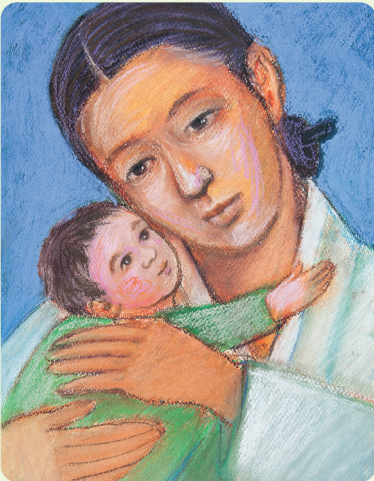
의정부주보

• 발행인 손희송 • 편집 홍보국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의정부교구청 • 홈페이지 www.uca.or.kr • 전화 031-850-1400(대표)

124위 복자

복자 이시임 안나

(1782-1816)



1782년 충청도 덕산 높은미(현 충남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의 양반 집안에서 태어난 이시임 안나는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인 뒤 고향을 떠나 가난하게 살았다. 일찍부터 동정을 지키기로 결심했으나 이로 인해 가족이 괴로움을 겪자, 멀리 떨어진 동정녀 공동체로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자신을 데려다주기로 한 교우 뱃사공에게 강제로 혼인당해 아들 종악을 낳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홀로 아들을 기르며 신앙생활을 이어갔다.

이후 신자들이 모여 사는 경북 영양 진보 머루산 교우촌에서 지내다 1815년 을해 박해 때 체포되었다. 안동에서 굳게 신앙을 증언한 뒤 대구로 이송되어 오랜 옥중 생활과 혹독한 형벌을 견뎠다. 특히 아들 종악이 자신의 품에서 죽는 고통을 겪으면서도 신앙을 저버리지 않았다.

약 1년 6개월 뒤 사형이 확정되자 감사가 배교를 권유했지만, 이 안나는 예수와 마리아를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한다며 이를 거부하였고, 결국 1816년 12월 19일 대구 형장에서 동료들과 함께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34세였다. 시신은 이듬해 3월 2일 친척과 교우들이 거두어 안장하였다.

성화_김형주 작,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하느님의 종 가경자 최양업 토마스 신부」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26

연중 제26주일 ·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소리 주보 ▶



입당송

다시 3,29.30.31.43.42 참조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당신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에, 당신은 진실한 판결에 따라 저희에게 그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에제 18,25-28

화답송

시편 25(24),4-5.6-7.8-9(●6L 참조)

◎ 주님, 당신의 자비 기억하소서.

○ 주님, 당신의 길을 알려 주시고, 당신의 행로를 가르쳐 주소서. 저를 가르치시어 당신 진리로 이끄소서. 당신은 제 구원의 하느님, 날마다 당신께 바라나이다. ◎

○ 주님, 예로부터 베풀어 오신, 당신의 자비와 자애 기억하소서. 제 젊은 날의 죄악과 잘못은 잊어 주소서. 주님, 당신의 자애에 따라, 당신의 어지심으로 저를 기억하소서. ◎

○ 주님은 어질고 바르시니, 죄인들에게도 길을 가르치신다. 가련한 이 올바른 길 걷게 하시고, 가난한 이 당신 길 알게 하신다. ◎

제2독서

필리 2,1-11 <또는 2,1-5>

복음 환호송

요한 10,27 참조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

복음

마태 21,28-32

영성체송

시편 119(118),49-50 참조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몸의 가시

“소금이 단맛을 내려고 한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고 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을 두고 했던 말이었습니다. 소금이 자기가 달다고 자랑하고 다닌다면 우습겠지요. 그런데 사도의 경우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을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코린토 2서의 끝부분에서는 다시 사도의 직무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10장부터 13장이 1장부터 9장보다 먼저 쓰인 것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는 시대 순서와 상관없이 단순히 내용만 보겠습니다. 코린토 2서 11장 13절에는 “거짓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11장 5절과 12장 11절에서는 “그 특출하다는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열두 사도를 지칭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사도라고 내세우거나 남들이 사도라고 하는, 그러나 참된 사도는 아닌 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조건을 내세웁니다.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자랑합니다.

그러면 바오로 사도는 어떻게 대응할까요? 제가 외국에서 살면서 이런저런 나라의 상황들을 늘 듣다 보니 바오로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이 전과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외국어를 몰라서 이방인의 사도가 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바오로는 그리스어를 알았고 긴 편지들도 쓸 능력이 있었습니다. 율법 공부도 했던 바리사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자랑을 하려면 자랑할 점들이 없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 밖에도 바오로는 자신이 신비로운 체험도 했고, 많은 수고를 했고 박해도 받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런 일들을 언급하는 것조차 어리석은 일이지만, 다른 이들이 내세우는 바로 그 논리로도 그들을 꺾을 수 있기에 바오로는 자신의 조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것은 “나의 힘은 약한 데에서 완전히 드러난다”(2코린 12,9)는 말씀이었습니다. 바오로는 그가 자만하지 못하게 주님께서 그의 몸에 가시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 “가시”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알 수 없지만, 신체적인 것이든 다른 어떤 것이든 바오로가 지녔던 약점을 지칭하겠지요. 주님은 그것을 없애주지 않으십니다. 아무런 약점이 없고 인간적으로 뛰어난 것은 사도가 갖추어야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소금이 단맛을 지닐 필요가 없듯이 사도에게는 그런 것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속된 세상에서 살아갈지언정, 속된 방식으로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2코린 10,3). 혹시 어떤 사도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스스로도 아무런 약점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적을 베풀어 모든 아픈 사람을 고쳐주고 모든 고만을 다 해결해 주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 준다면 그가 참된 사도라고 믿을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여겨질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십자가의 지혜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해서 코린토 1서를 처음 시작하던 때의 주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느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느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더 강하기 때문입니다”(1코린 1,25). 이를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사도의 직분도 얼마든지 속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도들이 인간의 지혜나 힘을 내세우지 않는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유일한 중개자 그리스도와 마리아

「교회헌장」 제60항

「교회헌장」 제60항은 제8장 제3절 “복되신 동정녀와 교회”의 첫 번째 항으로, 먼저 유일한 중개자이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언급하고, 이어서 마리아가 믿는 이들에 대해 갖는 어머니로서의 임무와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공의회는 “우리 중개자는 한 분뿐이시다.”라는 첫 구절에서 밝히듯,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중개자’임을 단호하게 강조합니다. 이는 사도 바오로의 다음 말씀에서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한 분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도 한 분이시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당신 자신을 모든 사람의 몸값으로 내어 주신 분이십니다”(1 티모 2,5-6).

공의회가 마리아와 교회에 관해 설명하며, 그리스도 중개의 유일성을 먼저 언급한 것은 1921년 벨기에의 메르시에 추기경이 ‘마리아의 보편적 중개’에 관한 교의 결정을 요청했던 상황과 관련이 있습니다. 베네딕토 15세 교황은 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공의회 이전까지 마리아에게 중개자의 호칭을 부여하는 문제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공의회는 교의 선언을 하지 않았고, 성 바오로 6세 교황은 「교회헌장」을 반포하는 제3회기 폐막 연설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복되신 동정 마리아에게 부여해야 할 위치에 대한 가톨릭 교리의 종합적인 전망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문장에서 공의회는 마리아의 중개에 대한 오해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근거를 제시합니다. 우선 사람들에게 대한 마리아의 어머니 임무가 그리스도의 이 유일한 중개를 흐리게 하거나 감소시키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여준다고 말합니다.

또한 마리아께서 사람들에게 미치는 모든 구원의 영향은 하느님의 호의와 그리스도의 넘치는 공로에서 흘러나옵니다. 따라서 이는 그리스도의 중개에 온전히 의지하고 종속되어 그곳에서 모든 역량을 길어 올립니다. 끝으로 마리아의 이 영향은 그리스도와 믿는 이들의 직접적인 결합을 방해하지 않고 오히려 도와줍니다.

사실 ‘중개’라는 용어는 맥락에 따라 협력, 조력, 전구 등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어가 마리아에게 적용될 때는 반드시 종속적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며, ‘참하느님’이요 ‘참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중개에 어떤 효력이나 힘을 미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마리아의 구원 영향은 그리스도의 중개에 온전히 의지한다.
_ 제라드 다비드의 〈카나의 혼인잔치〉, 루브르 미술관

이에 따라 공의회는 마리아에 대해 ‘중개’보다는 ‘협력’이나 ‘모성적 도움’이란 용어를 더 선호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 마리아의 구원 협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면이 있어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2025년 11월 4일 ‘구원 사업에서 마리아의 협력과 관련된 마리아의 일부 호칭에 관한 교리 공지’ 「충실한 백성의 어머니」를 발표하였습니다. ☼

복음찬가 2 성모의 노래: 마니피캇(Magnificat)

루카 복음은 주님 탄생 예고를 받아들이는 마리아께서 엘리사벳을 방문하셨다고 전합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이라고 축복하자, 마리아께서는 자신에게 큰일을 하신 하느님을 찬미합니다. 이 노래가 곧 성모의 노래(Magnificat)입니다. 이 노래는 시간 전례의 저녁기도에서 바치는 복음찬가이며,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에게는 까떼나의 중심 기도로도 친숙한 노래입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송하며

*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기뻐 뛰노나니,

당신 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 이제로부터 과연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능하신 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라

*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그 인자하심은 세세 대대로

* 당신을 두리는 이들에게 미치시리라.

당신 팔의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흠으셨도다.

권세 있는 자를 자리에서 내치시고

* 미천한 이를 끌어 올리셨도다.

주리는 이를 은혜로 채워 주시고

*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자비하심을 아니 잊으시어

* 당신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으니,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성무일도』, 「성모의 노래」(루카 1,46-55)

성모의 노래는 마리아의 감사에서 하느님 백성 전체의 찬미로 넓어집니다. 자신을 굽어보신 하느님께 감

사드리며, 이스라엘을 돌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시는 분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에는 한나의 노래와 시편 등 구약의 기도와 찬미가 배어 있습니다. 마리아께서 노래하신 하느님은 낮고 작은 이를 잊지 않으시고, 비천한 이를 높이며 굶주린 이를 채워 주십니다. 마리아께서는 자신의 삶 안에 바로 그 하느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고 기뻐하십니다.

시간 전례는 온 교회가 시간과 장소를 넘어 한마음으로 바치는 공적 기도입니다. 저녁기도를 바치는 이들은 성모님의 찬미에 자신의 하루를 담아 봉헌합니다. 레지오 마리아 단원들도 매일 까떼나를 바치며 성모님의 찬미 안에서 서로가 기도로 연결되어 있음을 되새깁니다. 성모의 노래는 이처럼 서로 다른 자리에 있는 신자들을 한 기도 안에 모아 하느님의 자비를 함께 기억하게 합니다.

하루가 저물어 갈 때 성모의 노래를 바치며 오늘 받은 은총을 돌아봅시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느님의 자비를 기억하고, 비천한 이를 들어 높이시는 그분의 뜻에 마음을 엮시다. 성모님과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받은 은총을 이웃과 나누도록 합시다.

성모의 노래는 오랜 세월 많은 작곡가에 의해 표현되어 왔습니다. 비탈디와 바흐, 현대 작곡가 존 루터, 아르보 패르트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작곡가의 작품이 있습니다. 같은 기도문도 작곡가에 따라 찬미와 기쁨, 자비와 겸손이 서로 다르게 표현됩니다. 성모의 노래를 묵상하며 이 음악들을 들어봅시다. 익숙한 기도문이 다양한 선율로 울릴 때, 성모님의 찬미와 믿음이 더욱 깊이 마음에 다가올 것입니다. 🎵

비탈디 마니피캇(전곡)



바흐 마니피캇 제5곡 Quia fecit mihi magna
(능하신분이 큰일을 내게 하셨음이라)





교구 소식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일시 10/2(금) 15시

장소 주교좌 의정부 성당

의정부교구 생태영성학교-기본 및 심화과정

일시 10/10(토)~11/14(토) 19시~20:30

장소 교하성당 성전(파주시 책향기숲길 62)

준비물 화치 <찬미받으소서>, 개인컵

마감 10/2(금)까지

교육비 3만원(우리은행 1005-804-525077 재)천주교의정부교구)

신청 전화 및 QR코드 신청서 작성

문의 031-850-1492 생태환경위원회

신청서 ▶



제41차 의정부교구 약혼자주말

일시 10/16(금) 19시~18(주일) 16시

장소 예수마음배움터(경기도 파주시 한빛로)

대상 예비부부, 혼인 5년 미만의 부부

문의 031-850-1459 가정사목부

신청 ▶



한마음 사계 피정 - 10월, 11월(대침묵 피정)

	10월	11월
날짜	10/16(금)~18(주일)	11/13(금)~15(주일)
강사	이성만 토마스 신부	최대환 세례자 요한 신부
주제	나는 천주교인 입니다.	아리스 모리엔다: 죽음에서 좋은 삶을 배우기

피정비 1인 20만원 (1인 1실)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피정의집

문의 031-850-1449 선교사목국

신청 ▶



[전시] 박국신 미카엘 개인전 「신앙과 삶展 - 회화」

일시 10/5(월)~16(금) 10:30~17시

장소 갤러리 평화(의정부시 시민로 53번길 36)

문의 031-877-9153

※ 전시기간 내 12일(월) 휴무

의정부 경제인 회원 모집

신앙 안에서 교류하며 나눔과 봉사를 함께할 경제인 회원을 모집합니다

대상 의정부교구 경제인 활동 신앙나눔, 봉사 친교

문의 010-4357-1386 사무총장 조태형 분도

[담화]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

제112차 세계 이주민과 난민의 날을 맞이하여, 레오 14세 교황께서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QR 코드를 통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 ▶



특별헌금

결과보고

헌금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 9일, 하느님의 집 기금 조성을 위한 특별헌금으로 130,113,160원이 모여졌습니다.

이는 향후 신설 본당의 부지를 마련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미사 · 피정 ▶▶

가정선교회 10월 피정

일시: 12:30~16:50, 가톨릭회관 3층 강당
성모신심 첫도 미사와 토요피정:

10/3(토) 김경진 신부

성가정 영성 피정: 10/7(수) 조남구 신부, 이현주 회장
1박2일 영성 특별 피정(아론의 집):

10/17(토) 14시~18(주일), 안토니오 사지 신부

문의: 0505-091-0523, 02-777-1773

서울대교구 가정선교회

온라인목주기도모임 - 선한목자예수수녀회

일시: 10/3(토) 11시 (첫토요일 11시)

대상: 35세 이하 미혼 여성

장소: 카카오톡 오픈채팅 "온라인목주기도모임"

제주 산들평화순례피정 -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제주 성지와 푸른 숲과 바다 그리고 올레길 순례
치유의 숲길: 11/21(토)~23(월), 12/4(금)~6(주일)

추라도 성지순례: 11/26(목)~29(주일), 12/7(월)~9(수)

동백꽃길: 1/15(금)~17(일), 1/24(주일)~26(화)

한라산 영실산행: 1/29(금)~31(주일), 2/19(금)~21(주일)

산들말씀피정: 2/26(금)~28(주일)

문의: 064-732-4702 면형의 집

길음동 성당 아가페성령기도회 치유말씀특강

매주(수) 18시~20:30, 소성전(B1, 주차가능)

9/30 김종일 신부, 10/7 박현민 신부

문의: 010-9248-8151(4호선 길음역 3번출구)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광활한 초원 성이시돌 목장에서 쉼과 함께

아름다운 제주여행과 오름·올레길, 성지순례

대상: 개인, 가족, 본당구반장, 소규모 공동체

연말연시(한라산): 12/31(목)~1/3(주일)

추라도포함 성지순례: 11/26(목)~28(토)

역세.올레길 포함: 10/17(토)~19(월),

11/1(주일)~3(화), 11/13(금)~15(주일),

11/17(화)~19(목), 11/21(토)~23(월),

12/1(화)~3(목), 12/5(토)~7(월)

문의: 064-796-4182, 02-773-1455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 안내

하느님, 바람, 나(힐링 피정): 10/29(목)~11/1(주일)

성경완독: 11/13(금)~21(토), 12/4(금)~12(토)

문의: 010-3340-0201 황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

예수성심전교수도회 신심 미사

일시: 10/2(금) 15:50(성시간 15시),

19:20(성시간 18:30)

장소: 고양시 덕양구 삼막2길 16 (3호선 지축역 10분)

문의: 02-379-8091, 010-6311-8071 (신청 필수)

성 이냐시오영신수련회

일시: 12/16(수) 17시 ~ 20(주일) 15시

장소: 제주 성 이시돌 피정의집

피정동반: 배영길 베드로 신부(예수회)

피정비: 40만원 / 주최: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신청 및 문의: 064-739-0951

의정부교구 성령쇄신 금요밤 기도회

일시: 10/2(금) 21시~24:30

장소: 마두동 성당 4층 소성전

주제: 하느님 나라를 향하여

강사: 정남진 안드레아 신부 (원주교구 배론성지 주임)

문의: 010-2127-0032

생활성가와 함께하는 한마음 청소년 음악 피정

1차: 1/2(토)~3(주일), 2차: 2/19(금)~20(토)

장소: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인원: 100명(선착순) / 회비: 11만원(식대 포함)

문의: 010-5399-7626 권성일 미카엘

대전교구성지순례

11/7: 신시도 최양업 공원-산막골(도보)작은재,
독미공소터

11/9~12 [3박4일]: 대전교구 28곳

27년 2/19~23 [4박5일]: 필리핀(롤롬보이)

출발: 서울 명동가톨릭회관 후문

문의: 010-3807-1784 이시도로

청주 초정성령회관 1박2일 치유평정

기간: 10/3(토) 14시~4(주일) 14시

강사: 김현우 신부, 김태영 회장, 고영민 회장

회비: 2만원(청소년 무료) 3식

셔틀버스: 조치원역, 청주고속버스 터미널

문의: 043-213-9103, 010-5482-6744



교육 · 모집 ▶▶

미사반주 및 묵상곡을 위한 오르간교육

일시: 10/12부터 (월~토) [10주]

주최: 아퀴나스오르간연구소

문의: 02-338-3793

신앙과 인문학, 새로운 만남 IV

주제: AI 시대는 그리스도 인간학의 위기인가 /

윤동주, 별빛 아래에서 신앙을 묻다 /

동양고전으로 읽는 그리스도인의 삶 /

종교개혁 시대, 책과 음악과 신앙

강사: 송용민 신부, 최성준 신부, 유성호, 박찬이

방식: 녹화동영상강의(10/29~11/19)

매주(목) 접속링크 발송 / 청년할인

문의: 02-2135-9398 한국CLC,

<http://www.kclcl.or.kr>

서강대 미래교육원 멀티미디어학/인공지능전공 모집

전공: 멀티미디어학 / 인공지능 전공

접수: 10/21(수)까지 / 전형일: 10/24(토)

서강대학교 총장명의 학사학위 수여(멀티미디어

학 전공) 수능, 내신, 계열 관계없이 지원가능

학점은행제 교육기관으로 빠른 학위취득 가능

학사학위 취득 후 학사 편입, 취업, 대학원 진학 가능

문의: 02-705-8678, <https://ssec.sogang.ac.kr>

성가발성 노래교실

다함께 성가를 TV 이호중 교수 직장

일산 시스피나음악원: 매주(금) 10시

문의: 010-9842-8818

(주)평화누리 장례지도사 교육원 교육생 모집

국가자격증 취득을 위한

실무중심 장례지도사 양성 교육

문의: 02-2258-8480, 8437

파주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도란도란 이용자 모집

대상: 만 18세 이상, 지적·자폐성 발달 장애인

(파주 관내 송영서비스 가능)

문의: 031-942-8000, cafe.naver.com/pjdoran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주간) 신입생 모집

신학: 신앙과 삶이 하나되는 통합적 신학과 함께

걸어가는 신학 추구

철학/영성·철학상담: '삶으로서의 철학함'을 통

해 삶의 문제 해결과 고통받는 인간 치유

가톨릭사회복지학/사회복지학: 사회문제에

적극 개입하여 실천적 대안 모색

접수: 9/21(월)~10/6(화)

전형: 10/17(토) / 문의: 02-705-8668~9

피아타스 가톨릭 합창단 단원 모집

자격: 성가대 경험 있으신 65세 이하 교우

일시: 매주(수) 19:40, 정발산 성당

문의: 010-3330-3725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시	장소	문 의
	성심수녀회	10/10(토) 14시~17시	원효로 성심수녀회 본원	010-5303-1956(문자)

오르간 반주 봉사자 모집

일시: 주 1회 / 평일 06시 또는 주일 10시
장소: 성 요셉 수도원(남양주시 별내동)
모집: 연중 수시 모집 / 봉사료 협의 가능
문의: 010-9798-8115

꽃동네 신내노인요양원 직원 모집

사랑합니다. 어르신을 정성으로 모셔주실
요양보호사, 간호사 모집합니다.
전화: 02-490-2609 / 팩스: 02-3422-3512
이메일: sinkflower3@daum.net

가작동 성당 피아트성가대 반주자 모집

자격: 피아노 및 오르간 전공자, 교중미사 경력자
서류: 교적증명서, 이력서(접수서류 반환 없음)
접수: nodagi@uca.or.kr 서류심사 후 면접(개별통보)
문의: 010-2623-2408 단장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계약직 직원 채용

분야: 행정 사무(번역)(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주교회의 홈페이지-알림마당-소식 참조
마감: 10/16(금) 14시 접수 서류까지
이메일 문의: mano@cbck.kr

〈신앙의 눈으로 만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시즌2〉

일시: 10/8~11/26 매주(목) 20시
장소: 백석동 성당
등록비: 5만원
강사: 강한수 신부, 최대한 신부, 김재근 신부,
고종희 마리아 교수, 박찬이 울리안나 작가
※2027년 강사와 함께하는 성지순례 예정되어 있습니다.

성 앵베르 센터(피정의 집) 직원 모집

인원: 주방근무자 1명(단체급식경력우대)
주5일 근무(주말근무 시 대체휴무)
채용절차: 1차 서류 전형 - 2차 면접
제출서류: 각 1 부씩
① 응시원서: 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
내'에서 다운로드
② 주임신부님 추천서 ③ 교적증명서
접수: imbert@seoul.catholic.kr 이메일
근무지: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46길 35



안내 · 기타 ▶▶

천주교 서울대교구 카프성모병원

알코올 사용장애 및 4대 중독 치료병원(입원 및 외래)
우울, 불안, 수면 장애 등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장소: 고양시 백석역(3호선) 7번 출구 5분 거리
문의: 031-810-9200, www.karf.co.kr

가톨릭여행사 해외 성지순례

11/3(화) 이탈리아 일주 전대사 특전 (11일)
11/9(월) 알프스와 중부 유럽 수도원 (12일)
1/11(월) 일본 나가사키 운젠 히라도 (4일)
1/11(월)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13일)
1/12(화) 유럽 4개국 성모님 3대 발현지 (12일)
1/26(화) 베트남 남부 (사이공) 5일
문의: 02-319-2533 가톨릭여행사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12/22(화)~12/26(토) 성탄 필리핀(195만원)
27년 2/2(화)~2/9(화) 멕시코 과달루페(565만원)
27년 3/6(토)~16(화) 파티마, 스페인, 루르드(495만원)
27년 3/6(토)~3/15(월) 영국, 아일랜드(610만원)
신청 및 문의: 02-2281-9070

성심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14(수) 일본 나가사키 성지순례 4일
10/23(금) 튀르키예, 그리스 순례 12일
11/16(월) 베트남 라방성모성지순례5일
지도사제 동행
문의: 김명운 베네딕도 010-5909-5997

산티아고 순례길 800KM 44일 엠마오

27년 3/30(화) / 비용: 599만원 (+2,500유로)
루르드 3박, 파티마 2박 포함 / 가톨릭 트래블
문의: 010-5464-0207, catravel.co.kr

콘솔라따 선교 수도회 멕시코 선교지 순례

일정: 27년 1/4(월)~1/14(목) [10박11일]
과달루페 성모발현지 / 톱스틀라(선교지)
문의: 032-345-9907, 010-8327-9907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대전교구에서 위탁운영
치매전문병동 운영
신경과, 가정의학과, 외과, 한의과
성사 생활 가능(사제, 수녀 근무)
문의: 041-950-1008

라파엘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0/26(월) 프랑스 성모발현지(12일, 595만원)
10/28(수) 발칸, 메주고리에(11일, 495만원)
11/2(월) 튀르키예, 그리스(12일, 515만원)
11/9(월) 알프스와 중부유럽수도원(12일, 570만원)
12/9(수) 스페인 포르투갈 루르드(10일, 대한항공)
27년 01/23(토) 스페인남부와포르투갈
(12일, 585만원)
문의: 02-778-8565 라파엘여행사

예수회 후원회 해외 성지순례

10/26(월) 알프스주변 수도원 및 성모성지(12일)
11/13(금) 홍콩, 마카오(4일)
11/24(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12/1(화) 베트남 다낭 성모성지(5일)
1/5(화) 홍콩, 마카오(4일)
1/19(화)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
2/5(금) 말레이시아(페낭, 말라카, 쿠알라룸푸르
(5일)-설연휴
2/6(토) 일본 나가사키 순교성지(4일)-설연휴
문의: 02-722-8366 크로바여행사

cpbc가톨릭평화방송여행사 해외성지순례

11/15(주일)~18(수) 일본 동북부 아키타
11/12(목)~23(월) 스페인-루르드-파티마
11/24(화)~27(금) 마카오-홍콩
12/8(화)~12(토) 베트남 다낭
12/18(금)~27(주일) [성탄특집]
독일-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12/28(월)~1/7(목) [송년&새해맞이] 이탈리아
문의: www.cpbctour.co.kr, 1551-1053

공지

부산교구

조씨 형제 순교자 묘 이전 안내

천주교부산교구에서는 지난 9월 15일(화) 조씨 형제 순교자 묘를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로 244, 정하상바로로 영성관 관내’로 이전하였습니다.

전국 교구 순례 중인 교우분들께서는 새로운 묘소 위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 묘소 위치: 경상남도 양산시 명곡로 244, 정하상바로로영성관 관내

문의: 055-383-3101

백석동성당 연중 인문학 특강

신앙의 눈으로 만나는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하반기 강의

시즌 2

2026. 10/8-11/26

백석동성당 매주 목요일 8시

시즌 강의료 5만원 / 현장접수

문의 : 백석동성당 사무실

031-908-6811

라파엘로 산치오

단테 알리기에리

미켈란젤로 부오나로티

담당 강사

건축 | 강한수 가롤로 신부 의정부 교구 사목 연구소 및 건축신학 연구소 소장

철학 | 최대한 요한 세례자 신부 의정부 교구 주교좌 성당 협력사목

음악 | 김재근 대철 베드로 신부 의정부 교구 백석동 협력사목, 성음악 전공

미술 | 고종희 마리아 교수 미술 사학자

음악 | 박찬이 율리아나 작가 음악 미술 칼럼니스트

PROGRAM

철학 · 건축 · 음악 · 미술을 가톨릭의 시선으로

10.08

르네상스 건축 4

강한수 신부

브라만테와 성 베드로 대성당

10.15

르네상스 음악의 대가 1

김재근 신부

팔레스트리나

10.22

단테의 「신곡」에 나타난 인간학

최대한 신부

10.29

르네상스 건축 5

강한수 신부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

11.05

르네상스 음악의 대가 2

박찬이 작가

몬테베르디

11.12

르네상스 미술 1

고종희 교수

신, 인간의 모습으로 지상에 내려오다

11.19

르네상스 미술 2

고종희 교수

신의 경지에 도전한 르네상스의 천재들

11.26

빛과 거울의 형이상학

최대한 신부

단테와 쿠자누스

★ 2027년 상반기(부활절 이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이탈리아 르네상스 문화 성지순례'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천주교의정부교구
성모순례지

행주성당

http://sd.uca.or.kr/hjsd1909
우 10440 경기 고양시 덕양구 행주산성로144번길 50

주 임 신 부 : 김승한 요셉
연 령 회 : 박 베드로 (010-6205-7458)
사 무 실 : Tel. 031-974-1728
Fax. 031-972-8537

성모봉소승진

주일미사		평일미사		성사 및 면담	
토 요 일	19:00	월	11:00	고해성사	매 미사 20분 전
주 일	09:00		화	병자영성체	매월 첫 목요일 미사 후
	11:00			유아세례	상시, 사무실 문의
성 시 간	매월 첫 금요일 미사 후	수, 목, 금	11:00	축복예식	
성모신심	매월 첫 토요일 11:00			사제면담	

행주성당은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순례지성당입니다.

행주성당 전대사를 위한 통상적 조건

1.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를 바친다.
2. 행주성당에서 거행되는 거룩한 예식에 경건하게 참여한다.
3. 주님의 기도와 신경을 바친다.

공동체 소식

● 이번 주 분당 축일 명단

축일	본 명	명 단
9월 29일	미카엘	류병운, 김남일, 유재우, 이기택 최건민, 장성준, 남승현, 정지원 권오을, 서승우
	미카엘라	김인수, 이경은, 이혜민, 권오윤 최태자, 장소이
	라파엘	권우석, 이종우, 최우성, 유승현, 남윤오
	라파엘라	정윤정, 김소연
	가브리엘	유지민, 남윤재
30일	소피아	류은희, 이승연, 이수빈
10/1	데레사	김상전, 조은행, 이윤경

- 10월에 기억해야 할 분당 선종 교우
유임순 마리아, 류용구 말구, 박은성 요한
신재산 요셉, 이윤분 아가다
선종한 교우를 위한 미사: 10월 7일 수요일 오전 11

공 지 / 단 체

- 10월 병자 영성체
일 시: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10월 성시간
일 시: 10월 2일 금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 10월 성모 신심 미사
일 시: 10월 3일 토요일 오전 11시
- 동절기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 변경 안내
동절기 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토요일 저녁
주일 미사 시간을 오후 7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미사 시간 변경 시작: 10월 3일 토요일부터
※화요일 저녁 미사도 같은 시간으로 변경됩니다.

● 예수살이공동체 주관 배동·제자 교육

일 시: 10월 9일(금) - 11일(주일) 2박 3일
장 소: 곧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원 피정의 집
주 제: 소비시대에 그리스도 따르기
강 사: 예수살이공동체 길벗
내 용: 예수님의 삶에서 찾은 자유, 기쁨, 투신
회 비: 180,000원
문 의: 예수살이공동체
02-3144-2144, 010-6750-2144

우리들의 정성(9/14 - 9/20)

● 교무금, 주일 헌금

추석 연휴 관계로 다음주 공지합니다.

교무금, 감사헌금

농협 217013-51-118905

(재)천주교의정부교구유지재단

계좌 입금시 책정자의 이름으로 하시고 입금 후
분당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화답송

